

26장. 두로에 대한 첫째 신탁 - 심판의 예언

두로에 대한 심판은 26:1-28:19까지 거의 세 장에 걸쳐 있다. 그리고 "패망케 하여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니"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된다(26:21, 27:36; 28:19).²²⁾ 두로에 대한 심판의 선언을 세 번 반복함으로써 심판이 확실함을 나타냈다. 11년 어느 달 1일에 두로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가까운 시점이라 생각된다.

두로는 페니키아 해변에서 약간 떨어진 바위섬 위에 건설되어 난공불락의 요새였고, 또한 스페인까지 이르는 교역망을 갖고 있는 부유한 나라였다. 경제적 교만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이 기록되었는데, 크게 보면 네 부분으로 '멸망 예언' 과 '멸망에 대한 애가' 가 반복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²³⁾

1. 첫째 신탁 - 멸망 예언 (26:1-21)

첫째 단락에서 지적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두로가 기뻐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무역 경쟁국이었던 유다가 제거됨으로 자기 나라가 경제적인 번영을 얻으리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바다에서 무역하여서 부를 쌓았던 두로였는데, 이제 흥용하는 과도가 그들을 덮쳐서 성벽이 훼파되고 그들은 깊은 구렁에 빠진 것처럼 될 것이다(26:3, 20).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만 생각한 두로는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완전히 멸망되고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²⁴⁾

27장. 두로에 대한 둘째 신탁 - 멸망에 대한 애가

둘째 단락에서는 두로의 영광을 웅장한 배로 비유하여 묘사한다. 가장 좋은 목재로 배를 짓고 가장 좋은 천으로 돛과 차일을 만들고 유능한 사람과 잘 훈련된 군인이 그 배를 운행하였다. 12-24절에서는 지중해 지역과 소아시아부터 시작하여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지역의 모든 귀중품을 길게 열거한다. 다시스의 배로 불리는 두로는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영광스러운 도성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 배가 바다 중심에 빠지고(27:26-27), 주변 국가들이 두로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애가를 부른다(27:28-35). 그들의 울음은 비웃음으로 바뀌고 두로는 패망케 되어서 다시는 있지 못하게 되었다(27:35).

22) '패망케 한다'고 번역된 말(hh'l'B; sudden terror)가 27:36, 28:19에서는 '경계거리'로 다르게 번역되었다.

23)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으나(26:3, 7, 15, 19, 27:1; 28:1, 11)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네 부분으로 읽을 수 있다.

24) 29:18-19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략하느라고 큰 수고를 하였어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대신 애굽을 점령하였다고 기록한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두로를 공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렇지만 그 전쟁 기간 동안에 두로는 느부갓네살에게 복종한 듯하다. 두로를 철저히 멸망시키는 것은 332년에 알렉산더 대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때에 여기에 기록된 대로 철저한 파괴가 성취되었다.